

“월드컵 원정 16강 꼭 이루겠다”

허정무 감독



한국 축구는 올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위업을 이뤘고 그 중심에는 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54) 감독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외국인 사령탑 시대를 마감하고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허정무 감독은 세르비아와 평가전 패배 전까지 A매치 27경기 연속 무패(14승13무) 행진을 이끌었다.

한국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목표를 잡고 있다.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그리스, 아프리카의 북부 나이지리아와 같은 B조에 묶여 본선 조별리그 통과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2009년 “뜻깊고 행복한 한해였다” = 허정무 감독은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얻은 올해 결산을 부각하자 “그토록 걱정하고 우려했지만 무사히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서 “더 큰 소득은 내년 월드컵 본선을 위해 젊은 선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다. 그렇지만 1승2무도 무난하다. 1승1무1패가 되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최소 1승2무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조별리그 상대팀과 관련해 “세 팀이 절대로 만만한 상대 아니고 우리보다 속직히 강한 팀이다. FIFA 랭킹은 물론이고 비디오프로 전력을 살펴보면 강한 팀에는 분명하다.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차전 상대인 그리스는 “체력 조건이 좋고 재공권에 능하고 수비가 탄탄한 면서도 역습으로 이어지는 게 날카롭다. 앞에서 제공 능력이 빠른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만만치 않은 상대. 공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 우리를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승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차전에 맞붙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세계 톱클래스의 팀이다. 카탈루냐 대표팀에 졌다고 그 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에게 벅찬 상대이면서 마음 놓고 해볼 수 있는 팀이다. 스피드와 개인 능력이 좋고 남미 팀 중에서도 공수 전환이나 경기 운영 템포는 빠

“젊은 선수들 기량 일취월장 희망 있다” “박주영 축구에 눈 떠...계속 발전했으면”

들이 일취월장하고 계속 커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월드컵에서 꼭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올해는 뜻깊고 행복한 한해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아쉬웠던 부분은 특히 없고 후회 없이 경기했다”면서 “좋은 기억, 특히 어려웠던 징크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낀다는 게 큰 소득이었다”고 자평했다.

▲“월드컵 본선 2승이 가장 좋은 그림” = 내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 진출을 목표로 정한 그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승패를 떠나서도 우리 선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월드컵이 나가 해외에서 할 때 후회와 아쉬움만 남고 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나고 나서 스스로 물어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다’는 그런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수들과 한 덩어리가 돼 노력한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선 목표 승수에 대해서 “2승을 할 수

르다. 상대가 빠른 공격을 못 펼치게 하는 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차전 상대인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체력 조건이나 유연성, 볼 컨트롤이 좋은 팀이다. 기를 살려주면 흥이 나서 미치게 아프리카 축구의 특징이다. 상대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가나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영, 본선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 = 허정무 감독은 시즌이 진행중이어서 내년 1월4일 시작되는 국의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유럽과 선수들에 대한 칭찬과 당부, 조언을 잊지 않았다.

이날 새벽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대표팀 간판 공격수 박주영(AS 모나코)에 대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골을 넣는 것보다 움직임과 볼 컨트롤, 상대 선수와 몸싸움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본선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다.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야구장 59%는 ‘맨땅구장’

전국에 있는 140개 크고 작은 야구장 중 반이 넘는 82개는 흙만 깔린 구장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야구위원회가 발간한 ‘전국 야구장 백서’에 따르면 야구장을 그라운드에 따라 분류하면 천연잔디구장은 28개에 불과했고 인조잔디구장 30개, 흙구장 82개(58.6%)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 야구팀이 사용하는 구장은 대부분 흙만 깔린 그라운드다.

조명시설을 갖춘 야구장은 62개(44.3%)로 조명없는 야구장(78개, 55.7%)보다 적었다.

전광판이 있는 야구장은 77개(55%)로 전광판없는 야구장(63개)보다는 많았다. 야구장 좌석수에 따라 분류하면 아예

‘KBO 백서’ 잔디구장 52개 1만석 이상 야구장은 11곳

관람석이 없는 구장이 60개(42.9%)로 가장 많았고 300석 이하가 49개(35%)였다. 1만석 이상 구장은 11개로 7.9%에 불과했다.

KBO는 백서 1천500부를 야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새 야구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야구장건립 매뉴얼도 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빠르게 더 빠르게 24일 서울 태릉 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남녀 스피드 빙상선수권대회 남자부 500m 스피드에서 출전한 서울시청의 이규혁(오른쪽)과 의정부시청의 이강석이 힘차게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홍성찬 세계 정상 우뚝

J 테니스 오렌지보울 12세부

홍성찬(우천초)이 제48회 주니어 오렌지보울 세계테니스대회 12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했다.

홍성찬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 대학 네일쉬트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2세부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스테판 코즐

로프(미국)를 2-0(6-4 6-2)으로 꺾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오렌지보울은 에디터 대회와 함께 연례별로 치러지는 주니어대회 중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미래 테니스 스타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등용문이다.

한편 홍성찬과 함께 출전한 이택희(신백초)는 패자전 결승에서 타보타보(필리핀)를 2-0(6-2 6-1)로 꺾고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경기난조에 코치 부재 日 아사다 이종교

경기력 난조에 빠진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19)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일본피겨선수권대회(25~27일·오사카)를 앞두고 “코치 부재”라는 이종교를 떠났다고 했다.

일본 스포츠신문 스포츠닛폰은 24일 “아사다의 전담 코치인 타티아나 타라스바(러시아) 코치가 일본피겨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 기간에 타라스바 코치는 러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러시아 제자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저승사자’ 베르하이엔 허정무號 합류

〈체력담당 트레이너〉

축구대표팀이 선수들의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위해 ‘저승사자’로 불렸던 레이몬드 베르하이엔(39) 피지컬트레이너를 다시 영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대표팀 피지컬 트레이너로 네덜란드 출신의 베르하이엔과 미카엘 쿠이퍼스(38) 등 2명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베르하이엔은 한국 대표팀과 세 번째 인연을 맺는 낯익은 인물이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사령탑이던 거스 하딩크 전 감독을 도와 선수들의 강철 체력을 완성하며 한국의 ‘4강 신화’ 창조에 힘을 보탰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출연한 배우 톰 크스와 외모가 닮아 ‘검프’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친근한 이미지의 별명과 달리 태극전사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부를만큼 ‘자유의 서클’ (양복 달리기) 등 강도 높은 체력 훈련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25일(금)
▲프로농구(KCC : 오리온스)(15 : 00·MBCSPN)
▲V리그(LIG손보 : 대한항공)(13 : 40, <도로공사 : 흥국생명>(15 : 40·KBSN S-SPORTS)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작용을 하여 나미야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높여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은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달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주요중시약 / 무료배송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옥연)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3기) 1월 8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장실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친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친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친구학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 중의침구학/장삼론/특종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활법·운동처방

· 자격 : 관심있는 분 · 기간 : 매주 금요일 2시간(3개월)
· 주요과목 : 재활운동처방/활법/정체요법/근육조절술 등
· 활법사, 운동처방사, 척추교정사 등 민간자격증 발급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해령법률경매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지역 (지역), 소재지 (소재지), 면적 (면적), 건평 (건평), 용적률 (용적률), 비교 (비교). Includes sections for 근린주택, 토지, 주택, 근린상가, 부패, 부가사업, and 부동산.